19세기 서울 옥호정(玉壺亭)과 석파정(石坡亭)을 통해 본 정원 특성*

이원호* · 김동현* · 김재웅* · 신현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경대학교 도시 및 환경과학학원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Garden through Okhojeong Garden(玉壺亭) And Seokpajeong Garden(石坡亭) in the 19th Century Seoul

Lee, Won-Ho* · Kim, Dong-Hyun* · Kim, Jae-Ung* · Shin, Hyun-Si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llege of Urb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Peking University, Chin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ison of spatial composition that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Construct background and space structure in both of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i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of the nobles gardens in late Joseon dynasty. They had the advanced techniques of contemporary based on their political power and wealth, and therefore could built garden and enjoy the garden culture of the upper layer. Furthermore, composition of the Okhojeong garden can be assumed that it is related to construction of the Seokpajeong garden throug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ers.

Secondly, Space structure of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is divided into pavilion unit of small gardens with living space as the center. Construction pavilion in each garden space imbues certain landscape theme. In addition, authorization of characteristics of a place in each area is attempted through boundary establishment and selective garden culture of varied seasonal landscape.

Thirdly, In Seokpajeong garden, most of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Okhojeong garden are appeared. This indicates that Seokpajeong garden was affected by space-configuration-technique of Okhojeong garden such as acceptance or modification recreation.

Fourth, In many cases, fanciers regarding floriculture are expanded to enthusiasts in late Joseon dynasty. In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herbaceous ornamental is considered to be precious and garden materials such as water tray, stone couch, oddly shaped stone, potted plant, artificial hill, wisteria trellis are diversified at the time.

Key Words: Okhojeongdo(玉壺亭圖), Organization of space, Seokpa pavilion folding screen(石坡亭圖屏風), Villa garde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옥호정과 석파정을 대상으로 두 정원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조영 배경과 공간구성, 정원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옥호정과 석파정은 조선 후기 권력가의 정원으로 정치적 기반 및 부의 축적을 통해 당대의 고급 기술과 자본이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4 명승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적용연구'(과제번호: NRICH-1405-A18F-1)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02-834, South Korea, Phone: +82-42-610-7628, E-mail: briton2409@naver.com

투여되어 창출된 정원문화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 상위계층의 정원문화가 투영된 각각의 정원이 아니라 옥호정이 석파정의 조영에 관련 있었음을 조영자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옥호정과 석파정의 공간구성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작은 정원공간이 정자 단위로 분화된 공간 구성으로 분절된 집산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원공간은 정자의 경영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였으며, 식재 및 단의 처리로 경계를 설정하고 계절별 경관의 다양화를 통해 단위 공간 내 다양한 원에 요소를 도입하는 등 각 공간에 장소성의 부여가 시도되었다.

셋째, 옥호정의 공간구성을 도식화하고 이를 석파정과 비교분석한 결과, 옥호정의 조영특성 대부분이 석파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석파정의 정원이 옥호정의 공간구성기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조성 과정에서 변용되는 등 정원의 구성기법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 후기 화훼에 관한 취미는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 벽의 단계로까지 접어든 경우가 적지 않다. 옥호정과 석파정에서는 당시 진귀하게 여겨지는 기화요초 및 수반, 석상, 괴석, 분재, 석가산, 등나무 시렁 등 다양한 정원소재들이 정원구성요소로서 각 공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공간구성, 별서정원, 석파정도병풍(石坡亭圖屏風), 옥호정도(玉壺亭圖)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의 정원문화를 살펴보면 조선 중기까지는 도가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시정의 세속보다는 산림이나 강호에 은거하는 삶의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직의 임용이나 문화의 혜택이 한양으로 집중되면서, 전원보다는 도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Ahn, 2004). 조선 후기 권력층은 당시의 사회 상황과 자신의 이상을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성안의 경승지를 취득하고, 정원의 조영이 가능하였다(Kim, 2008). 이 중 안동김씨 일가는 세도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어, 이에 따른 정원의 경영은 당시의 정원 조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나 서울의 도시화 및 산지에 위치한 정원의 입지 특성에 의해 이러한 고정원이 대부분 사라져 그 원형을 물리적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경학분야에 있어서 고정원을 중심으로 시대적 양식을 구명하기 위해 많은 유구에서부터 남겨진 문헌이나 그림에 이르기까지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Kim, 2008).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원의 조성연대나 조영자에 관한 추적은 정원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문화적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양식론상 중요한 작업이다(Lee et al., 2006).

과거 한양에 위치한 안동김씨 일가의 정원 중 당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남아있는 정원 중 옥호정과 석파정은 당시의 정원 중에서도 이름난 장소이자, 조영자의 파악이 비교적 명확한 정원으로, 당대 권력가인 조영자가 경영한 정원을 사례로 당시의

별서 정원 조영을 살펴볼 수 있다.

옥호정과 석파정에 관련된 연구로는 조영의 실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Yoo et al., 1989; Lee, 1992; Chung, 1996)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해석 연구(Shin, 2011; Lee et al., 2006) 및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정원 조영 특성 연구(Kim, 2008)가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물리적 공간구성에 관한 분석에 편중되고 있거나, 시문이나 문집의 기록 등 텍스트 위주의 사료를 바탕으로 그 원형을 파악하는 연구로 당시 정원요소의 상대적 관계 및 조영원리 등 정원문화를 특성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한양의 대표적 정원이라 할 수 있는 옥호정과 석파정을 대상으로 문헌을 포함한 관련 서화, 신문기사 등의 분석을 통해 조영의 실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당시의 정원 경영과 공간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정원 구성요소를 고찰함으로써 두 정원의 공통된 정원 조영 특성을 구명할 수 있는 기초적 단계의 사례를 제시하고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조선 후기 안동김씨 일가의 정원인 옥호정과 석파정을 대상으로 삼았다. 옥호정은 현존하지 않으나, 옥호정도에서 나타나는 초석 및 일관석의 각자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삼청동 133번지에는 일관석 각자가 남아 있으며, 옥호정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번은 현재는 물론 『경성부 관내지적목록(1917)』 및 『경성부지형명세도(1929)』에도 모두

삼청동 133번지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의 지적도면과 비교하여도 지적상의 변동이 없어 옥호정이 위치했던 곳은 삼청동 133번지였음이 기존 연구(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2007)에서 확인되었으며, 『옥호정도(玉壺亭圖)』와 『풍고집(楓臯集)』을 포함한 문헌 및 시문에서도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Figure 1. existing in Cornerstone and Lettering 'Il-Gwan-Seok' and Change of Location in Okhojeong Garden
cite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2007)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석파정은

『유관집(游觀集)』 및 『석파정도병풍(石坡亭圖屏風)』¹⁾ 등이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석파정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상세한 자료인 허련(許鍊, 1808~1893)의 『소치실록(小癡實錄)』에 나타나는 정원요소가 석파정도병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삼계동 정자라 불렸던 김홍근의 정원이 대원군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김홍근의 정원을 소유하고자 하였던 대원군이 정원의 기본 틀에 정원요소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된 요소들은 당시의 정원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파정의 공간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Figure 2. Okhojeongdo
Private Collection

Figure 3. Seokpajeong Screen Painting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같은 일가로서 정원 조영자간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각 정원 조영자는 당시 최상위 권력층이었다는 점, 옥호정도와 석파정도 병풍에서 나타나는 공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을 근간으로, 상대적으로 정원 조영시기가 빠른 옥호정이 석파정의 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옥호정과 석파정의 조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두 정원의 조영실제를 분석하기 위한 정원 조영자의 문집 분석이 선행되었으며, 정원 관련 시문이나 기록을 고찰하였고 이를 옥호정도와 석파정도병풍에서 공간구성이나 정원구성요소의 상대적 입지를 파악하였으며, 당시의 정원문화가 두 정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1 참조). 이에 따른 결과는 공간분석을 통해 두 정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정원 특성을 도출하였다.

Table 1. Using Literature and Iconography Map for Analysis

구분	문헌	저자	제작연대	소장처
문헌	풍고집(楓臯集) 壺亭	金祖淳(1765~1832)	1868	규장각 도서
	풍고집(楓臯集) 石假山五古書贈經山直閣	金祖淳(1765~1832)	1868	규장각 도서
	유관집(游觀集) 陪楓臯從叔到龍門寺	金興根(1796~1870)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황산유고(黃山遺稿) 元夜 山房遇雪 喜賦近體	金迪根(1785~1840)	19세기 말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황산유고(黃山遺稿) 陪家大人遊龍門寺次老杜韻	金迪根(1785~1840)	19세기 말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소치실록(小癡實錄)	許鍊(1808~1893)	18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매천야록(梅泉野錄)	黃玿(1855~1910)	20세기 초	황현 본가
도상자료	효전산고(孝田散稿) 自著實記	沈魯崇(1762~1837)	미상	연세대학교 도서관
	옥호정도(玉壺亭圖)	미상	1815년경	개인소장
	석파정도병풍(石坡亭圖屏風)	李漢喆	19세기 중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III. 결과 및 고찰

1. 조영의 배경

1) 시대적 양상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순조 대에서 철종에 이르는 시기는 김조순을 필두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나타났던 시기로 황현(黃玗,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당시 안동김씨의 권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김조순은 철종의 국주로 지하동에 살다가 권세를 잡은 후 교동으로 이사했다. 사람들의 발음에 따라 지하동이 '자동' 혹은 '장동'으로 들렸다. 그는 국명을 임금 대신에 집행했으며, 나아가 궁에 걸쳐 임금과 혼인을 맺어 권세를 누렸다.

이 때문에 안동 김씨를 속칭 '장김(장동에 사는 김씨 집안)'이라 불렀다. 김조순이 죽고 그의 아들 유근과 좌근을 비롯해 손자 병기까지 교동에 살았다. 김문근 역시 철종의 장인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병필의 나이가 어려 조정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조카 병학과 병국은 정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동에 살고 있었는데 김병기와 함께 권세를 휘둘렀다. 따라서 서울하면 '전동과 교동'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

『매천야록(梅泉野錄)』

이러한 안동김씨의 특세는 왕권이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중산층의 경제적 성장 또한 신분사회의 체제가 미약해지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2) 정원 조영자

옥호정의 조영자는 김조순(金祖淳, 1765~1832)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의 장인이 되어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으로 추존된 인물로(Hong, 2001), 당대의 세력가로서 여유롭게 별서를 조영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을 기반으로 사대부 민가의 높은 조정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itage Channel). 풍고집(楓巢集)에는 옥호정은 김조순이 지명을 얻어 말년에 거처한 별서로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그 곳에서 나타나는 정원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壺亭 호정

自愛靑山宅 푸른 산宅을 내 스스로 사랑하니,
何煩綠野堂 어찌 녹음진 野堂을 번거로워 하리.
烟巒千古色 산 안개와 옛부리는 천고의 빛이요,
雲峽四時涼 구름 낀 골짜기는 사시사철 서늘하다.

石經林楓舍 자갈길엔 단풍숲이 덮혀있고,
松門澗水長 松門에는 澗水가 길게 흘러내린다.
衰癯無外事 늙고 병들어 바깥세상 일에 관심 두지 않고,
終日淨書香 종일토록 書香을 맑게 할 뿐이네.

『풍고집(楓巢集)』

옥호정도에는 별서 뒤편 산기슭과 석벽에 혜생천(惠生泉), 옥호동천(玉壺洞天), 을해벽(乙亥壁), 산광여수고 석기가장년(山光如濠古 石氣可長年) 각자가 있다. 이 중 을해벽(乙亥壁)의 '을해(乙亥)'는 순조 15년(1815년)으로 옥호정을 조성한 연대로 보여진다.

옥호정은 김조순의 사후 이렇다할 경영자가 나타난 바 없으나, 김조순의 장자 김유근(金洵根, 1785~1840)의 문집인 『황산유고(黃山遺稿)』의 시문에 옥호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김조순에 이어 김유근이 옥호정을 자주 왕래함을 찾아볼 수 있다.

元夜 山房遇雪 喜賦近體

정월대보름날 옥호산방에 눈이 내려 기뻐서 근체시를 짓다.

山房盈尺雪 산방에 한 자나 쌓인 눈
元夜趁人來 정월대보름 사람 따라 왔네
玉削千峯列 옥을 깎은 듯 천 봉우리 늘어서 있고
花添萬樹開 꽃이 핀 듯 온 나무에 눈꽃이 피었네
險夷平等見 험하거나 평평하거나 똑같이 보이고
心眼一時恢 마음과 시계(視界)가 동시에 트이네
洞滌多生累 전생의 업보 말끔히 씻기니
今行亦快哉 이번 행차도 역시 통쾌하구나.

『황산유고(黃山遺稿)』

석파정의 실제 조영자는 김흥근(金興根, 1796~1870)으로, 한수운림암(閑水雲簾庵)을 인수하여 별서로 조영한 것을 기원으로 하며, 그 후 흥선대원군이 경영한 바 있음을 『매천야록(梅泉野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흥근은 북문 밖 삼계동에서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그의 별장을 팔 것을 요구했지만 김흥근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그래서 대원군은 하루만이라도 빌려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김흥근은 대원군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는데 대원군은 고증을 청해 이곳에 함께 왔다. 얼마 후 고증이 함께 다녀갔다는 말에 김흥근은 이렇게 푸념했다. "상감이 와서 놀다간 곳은 감히 신하가 놀 수 없다." 이 말과 함께 이곳에 출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원군의 소유가 되었다.

『매천야록(梅泉野錄)』

(Figure 5 참조), 권력을 취득하는 시기의 차이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 인물의 사이에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의 존재가 중간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옥호정과 석파정의 관계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2. 옥호정과 석파정의 조영기법

1) 정자 단위의 공간 분화

(1) 공간구성

당시 서울의 상류주택 배치는 대지의 입지적 조건이 대부분 가로(街路)에 면하고, 다른 주택이 인접하여 건축되어 심한 제약받고 있다(Joo, 2000). 분석결과 두 정원은 산지에 입지하여, 정원 내에 가옥의 포치를 중심으로 각 공간에 정자를 조성하고 장소성을 부여하는 집산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이용 동선의 핵심 지점에 위치해, 여러 광경을 수습하여 흠어진 원림의 경관에 주제를 부여한다(Zhu, 2013). 이는 옥호정과 석파정에 결부되어 본채로 특징지어지는 생활공간을 제외한 각 구역이 정자로 대별되는 일련의 공간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공간의 복합 형태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별서정원 내에 작은 정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Figure 6 참조).

옥호정은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된 형태인 본채로 대별되는 생활공간, 죽정 및 산반루가 조성된 후원, 옥호동천 및 침운정 공간과 서당이 조성된 별원⁴⁾, 진입공간으로 구분된다. 석파정의 공간구성은 안채와 사랑채, 현재 흥지동으로 이전된 별당채로 구성된 생활공간과 별채가 후면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랑채 전면의 수림대에 위치한 옥모정 및 중국식 정자가 조성된 별원, 현재는 실재하지 않지만 서울시사⁵⁾에 나타나는 진입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생활공간인 'ㄷ'자 형태의 사랑채와 안채 영역을 중심으로 공간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정원 및 별서정원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로 일반적인 주택정원은 가옥에 귀속되는 정자가 다수인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며, 별서정원의 경우 여러 정자를 경영하는 사례가 나타나지만, 주택으로 대별되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공간의 확장이 아닌, 독립된 장소로서의 배치형식을 가진다.

본채의 후면에 후원 및 별채의 공간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옥호정은 죽정 및 산반루, 석파정은 별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본채의 사랑마당 전면에는 정자를 조성한 바, 옥호정은 정자를 짓고 서당으로 이용하였으며, 석파정은 현재 터만 남아있는 옥모정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Figure 7 참조).

a. Seokpajeong Byeoldang Villa b. Yungmojeong Pavilion

Figure 7. Seokpajeong Byeoldang Villa and Yungmojeong Pavilion in Old Picture

a: Kim(2012), Recovery of Original Form in Seokpajeong Byeoldang Villa
b: The Kyunghyang Shinmun, May 9, 1988.

본채에서 별원으로 가는 공간은 더욱 심원해지며, 시각의 절점에 옥호정에는 침운정, 석파정은 중국식 정자가 조성되어

a. 옥호정의 공간구성 및 정원요소 모식도

b. 석파정의 공간구성 및 정원요소 모식도

Figure 6. Mimetic Diagram of Space Configuration and Garden Elements in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Yoo et al. (1989). The Original Form of the Joseon Dynasty Garden, Reconstitution by Author

점선 형태의 ■은 옥호정과 석파정의 공간별 영역, □안의 붉은색 글자는 옥호정과 석파정에 동시에 나타나는 정원요소

있다. 두 정자는 별서정원 내에 수계와 인접한 정자로서 주변의 수림대로 위요된 개별적 장소이다.

(2) 공간구성요소

석파정은 옥호정의 정원조영원리의 영향을 받은 정원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옥호정과 석파정의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원요소 중 중국식 정자를 연결하는 곡교 및 지형에 따른 폭포, 삼계동 각자와 한수운림암 각자 등 정원입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형적 요소를 제외한 공간구성요소가 옥호정과 동일하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6 참조).

이는 석파정의 정원구성요소가 옥호정의 공간에서 그대로 수용하거나 조성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 및 조합의 형태로, 옥호정의 조영특성의 일부가 석파정의 정원의 구성기법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공간의 분절과 연속

옥호정과 석파정은 정자로 구분지어지는 공간의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각구조 차단 기법을 사용하였다. 두 정원의 시각구조를 살펴보면, 각 공간을 위요하는 수림대의 조성 및 단의 설치를 통해 하나의 장소로서의 경계가 설정되었다(Figure 8 참조).

옥호정의 사랑마당은 진입로와의 경계부에 단을 높이고 취병을 설치하여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정원 내 다른 소공간과 연결되는 지역에 진귀한 화초를 화계의 형태로 조성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 후원 또한 화계를 통한 단을 조성하여 외부와의 격리가 나타나며, 첩운정 일원은 단풍대(丹楓臺)라는 단을 조성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는 사당의 지역과 경계를 공유함과 동시에 조망요소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파정의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안채의 전면의 계류와 인접한 수림대와 별당채로 한정지어진다. 본채보다 좀 더 높은 지형에 위치한 별채는 사랑마당의 조망권역을 포함하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담장으로 위요된 장소로서 내부와 격리되어 있으며, 북악산과 인왕산의 일부만이 조망되는 지역이다. 중국식 정자로 대별되는 별원과 옥모정의 경우는 주변이 수림대로 위요되어 폐쇄적인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4) 계절별 장소성에 입각한 공간의 조영

옥호정과 석파정이 가지는 공간의 성질로 보면 감상유람용이 있고, 일상의 거주를 위한 것도 있으며 연회와 오락의 장소로 삼는 것도 있으며 그밖에 개인의 활동과 공공의 사교장소로 이용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용행태에 따른 장소의 선정기준은 개별적 공간이 가지는 경관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에 주된 요소는 계절별 나타나는 수목의 특성을 포함하는 점점물에 해당한다.

a. Differentiation of Space and Visual Structure in Okhojeong Garden

b. Differentiation of Space and Visual Structure in Seokpajeong Garden

Figure 8. Differentiation of Space and Visual Structure in Okhojeong Garden and Seokpajeong Garden

Yoo et al.(1989). The Original Form of the Joseon Dynasty Garden. Reconstitution by Author

두 정원의 공간별 식물의 개화 및 열매의 결실 시기를 성상별로 상록수, 화목류, 초화류로 구분한 결과⁶⁾, 각 공간에서 동시에 개화하거나, 열매의 결실이나 단풍 등이 어우러져 당시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개별적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옥호정의 경우 정원의 중심부인 본채에서 작약, 국화, 수련, 모란 등의 초화류를 중심으로 수목의 개화시기나 열매가 결실을 맺는 시기를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심원에 해당하는 첩운정에서도 후원의 송림과 단풍대의 설치 등 계절별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였다. 그 외에 후원에 해당하는 죽정·산반루는 영산홍이 개화하는 4~5월이 후원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시기로 나타나며 서당의 경우, 첩운정과 경계를 공유하는 단풍대가 주요 조망요소로 삼고 있다. 석파정은 선형으로 전이되는 공간의 특성상 심원에 해당하는 중국식 정자가 단풍나무, 벚나무 등이 주를 이루는 후원의 산림과 전면의 식생으로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다양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옥모정은 석파정 전면의

Table 2. Estimate of Using Season Each Space by Plants in Garden

a. Estimate of Planting in Okhojeong Garden

b. Estimate of Planting in Seokpajeong Garden

c. Blooming Season and Harvesting Season in Garden

성상	수종	학명	식재위치		개화	결실
			옥호정	석파정		
상록침엽교목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배후림	육모정		
상록침엽교목	섬잣나무	<i>Pinus parviflora</i>	-	육모정	6월	9월
상록활엽관목	영산홍	<i>Rhododendron indicum</i> (L.) Sweet.	산반루, 서당	-	4~5월	-
낙엽활엽교목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서당	육모정, 중국식 정자	4~5월	10월
낙엽활엽교목	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	중국식 정자	4~5월	6~8월
낙엽활엽교목	회화나무	<i>Sophora japonica</i> L.	사랑마당	-	7~8월	10월
낙엽침엽교목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	육모정	5월	10월
낙엽활엽교목	수양버들	<i>Salix babylonica</i> L.	진입 공간(계류가)	-	4월	5월
낙엽활엽교목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MAKINO	첩운정	후원, 삼계동 각자, 진입 공간	4~5월	5월
낙엽활엽소교목	복사나무	<i>Prunus persica</i>	가포	-	4~5월	7~9월
낙엽활엽관목	미루나무	<i>Populus deltoides</i> Marsh.	-	미상	3~4월	5월
낙엽활엽만경목	포도나무	<i>Vitis vinifera</i> L.	가포	-	5~6월	8~10월
낙엽활엽만경목	등나무	<i>Wistaria floribunda</i> A.P. DC.	-	별당	5월	9~1월
낙엽활엽만경목	오미자	<i>Schisandra chinensis</i> (Turcz.) Baill.	가포	-	4~6월	8~10월
초화류	작약	<i>Paeonia lactiflora</i>	사랑마당	미상	5~6월	8월
초화류	국화	<i>Chrysanthemum morifolium</i> RAMAT	사랑마당	미상	9월	9월
초화류	수련	<i>Nymphaea tetragona</i> Georgi	사랑마당	미상	6~8월	8월
초화류	황매화	<i>Kerria japonica</i>	사랑마당	미상	4~5월	9월
초화류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사랑마당	미상	5월	7~9월
-	파초	<i>Musa basjoo</i> Siebold & Zucc.	사랑마당	미상	6월	8월
-	조릿대	<i>Sasa borealis</i> (Hack.) Makino	산반루	-	4월	5~6월

d. Overlap Plants of Each Space in Garden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3	4	5	6	7	8	9	10	11	12	1	2
옥호정	본채	■	■	■	■	■	■	■	■	-	-	-	-
	죽정 · 산반루	-	■	■	-	-	-	-	-	-	-	-	-
	첩운정	-	■	■	□	□	□	□	□	-	-	-	-
	서당	-	-	-	-	-	■	■	□	-	-	-	-
석파정	본채	-	■	■	-	-	-	□	□	-	-	-	-
	별채	-	-	□	□	□	□	□	□	-	-	-	-
	중국식 정자	■	□	□	□	□	□	□	□	-	-	-	-
	육모정	-	-	-	□	□	-	□	□	-	-	-	-

■ : 상록수, 화목류, 초화류 중첩, ■ : 상록수, 초화류 중첩, □ : 상록수, 화목류 중첩

산림 내에 위치한 정자로서 그 일대의 경관은 『소치실록(小癡實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집의 서쪽에서 한쪽 문을 따라 나오면 육모정(六茅亭)이 시냇물 소리 나는 나무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상스러운 새들이 스스로 날아와 맑은 소리를 들려 주었고...(후략)

『소치실록(小癡實錄, 1867)』

이는 수목의 개화시기와 열매의 결실에 따른 야조류의 유입 등 계절별 조망경관이 뛰어난 장소에서 상록수, 화목류, 초화류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조망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당시의 원림문화를 향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위 공간 내 다양한 원예활동

18, 19세기의 문인 지식층에서 화훼에 관한 취미는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 벽(癖)의 단계로까지 접어든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전 시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이전 시기 완물상지로 꺼리던 화훼에 대한 관심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서울을 중심으로 문인들의 조화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Jung, 2007). 이와 같은 원예취미의 확산은 화훼의 유통과 분재의 성행과 결부되어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원을 가꿀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아예 상상 속의 정원인 의원(意園)을 꾸며 글로 남기는 사례도 나타났으며, 『자저실기(自著實記)』에는 당시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연못과 누대, 화단과 정원 그리고 이름난 꽃과 아름다운 나무는 사람의 심성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그것을 완물상지라고 하면 옳지 않다. 젊었을 때 그것에 뜻을 두었고 나이가 들어 더 심해졌으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재물이 없어서이다.

『자저실기(自著實記)』

조선 후기 원예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안동김씨 일가는 당시의 권력층으로서 자신만의 정원에 다양한 원예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옥호정도에 나타나는 원예활동으로는 모란, 석류, 작약, 파초 등 진귀한 화관목류를 화계에 심었으며, 푸른색 사각 수반과 화분에는 수련을 키우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원 내 곳곳에 가산이나, 석상, 괴석, 분재, 수반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김조순의 문집 『풍고집(楓臯集)』의 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石假山五古書贈經山直閣 석가산오고서산증경산직각
累石像眞山. 돌을 쌓아 진산처럼 만드니

却向庭心起. 뜰에 두어 중심을 삼는다.
隨累隨爲形. 쌓아올림에 따라 형상이 생기고
巖洞生造次. 바위틈의 동굴도 생겨난다.
譬如畫物者. 비유하건데 서물이란
初但臨空紙. 다만 빈 종이를 대하는 것이라.
執毫想其態. 붓을 들어 그 모습을 상상하며
現眼即成指. 현안의 손을 눌러 그려낸다.
佳卉種便生.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고
小松移不死. 작은 소나무는 옮겨 심어도 죽지 아니하니
幽處悅雲氣. 그윽한 곳에 황홀한 구름 드리우며
蒼翠入隱几. 푸른빛은 그늘진 책상을 비추네.
我方托膏肓. 이제 나의 고치기 힘든 병을 여기에 맡기고자 함은
朝暮對之喜. 아침저녁으로 이를 대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풍고집(楓臯集)』

석파정도병풍에서는 괴석, 분재, 석상, 수반 등이 하나의 공간 내에 집약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Figure 10 참조), 소치실록에서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김홍근의 원예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기화요초가 정원에 가득하여 때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물썩한 향기가 하늘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처마 앞의 시렁에 올린 등나무에 붉은 꽃이 여기저기 드리워져 송이를 이루고 향기를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소치실록(小癡實錄, 1867)』

상기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기사항으로는 등나무 시렁이 있는데, 이는 옥호정에서도 포도가(葡萄加, 포도시렁), 오미자가(五味子架) 등의 설치를 통한 원예활동이 나타난다.

Figure 9. Garden Elements in Okhojeongdo(玉壺亭圖)

Figure 10. Garden Elements in Seokpajeong Screen Painting (石破亭圖屏風)

IV. 결론

조선 후기 안동김씨 일가의 대표적 정원이라 할 수 있는 옥호정과 석파정의 조영 배경 및 공간구성, 정원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옥호정과 석파정은 조선 후기 권력가의 정원으로 정치적 기반 및 부의 축적을 통해 당대의 고급 기술과 자본이 투여되어 창출된 정원문화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 상위계층의 정원문화가 투영된 각각의 정원이 아니라 옥호정이 석파정의 조영에 관련 있었음을 조영자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옥호정과 석파정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작은 정원공간이 정자 단위로 분화된 공간구성으로 분절된 집산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원공간은 정자의 경영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였으며, 식재 및 단의 처리로 경계를 설정하고 계절별 경관의 다양화를 통해 단위 공간 내 다양한 원예 요소를 도입하는 등 각 공간에 장소성의 부여가 시도되었다.

셋째, 옥호정의 공간구성을 도식화하고 이를 석파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옥호정의 조영특성 대부분이 석파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석파정의 정원이 옥호정의 공간구성기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조성 과정에서 변용되는 등 정원의 구성기법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 후기 화훼에 관한 취미는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 벽의 단계로까지 접어든 경우가 적지 않다. 옥호정과 석파정에서는 당시 진귀하게 여겨지는 기화요초 및 수반, 석상, 괴석, 분재, 석가산, 등나무 시렁 등 다양한 정원소재들이 정원구성요소로서 각 공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안동김씨 일가의 대표적인 정원인 옥호정과 석파정을 대상으로 당시 권력층의 정원 경영 및 공간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두 정원은 조선 후기 한양의 정원 중 다양한

정원 구성요소를 활용하고 그 공간을 정자단위로 세분한 정원으로 당시 성행하였던 정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 1) 병풍으로 그려진 석파정도는 이하옹의 별서였던 석파정을 그린 것이다. 병풍의 마지막 폭 왼쪽 아래 구석에는 '이한철인'이라는 백문방인이 있어 조선 말기 화가 이한철(李漢喆, 1808 - 1880 이후)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Korea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주 2) 陪家大人遊龍門寺次老杜韻昔望龍門好
今日親涉境 滿山紅黃葉 因水皆生影樹續雨露深寺殘香火冷夜久幽泉響使我心屢省

아버님을 모시고 용문사에 가다 두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난날 용문을 바라보며 좋아했는데, 오늘 아버지 모시고 경내에 머물렀네. 붉고 노란 나뭇잎들 온 산 가득차고, 물가엔 온통 그림자로 덮여있구나. 비와 이슬로 젖은 울창한 나무숲은 고요하며, 풍기는 향불 연기 냉랭하고, 밤새도록 그윽한 냇물소리 귀에 들리네. 나로 하여금 거듭 살피게 하는구나.

『황산유고(黃山遺稿)』

주 3) 陪楓皋從叔到龍門寺始覺龍門高

到寺纔及境 淸磬引客至 亂石依僧影 山容積深厚 秋老氣不冷 聶聶楓樹林 高低未可省

풍고 종숙어른을 모시고 용문사에 가다

용문산이 높은 줄 이제 알았네. 절문에 다다르니 겨우 경내라. 고요한 풍경소리 객을 부르고, 스님들의 그림자 돌에 기대네. 산에는 심후함이 쌓인 듯하고, 가을 기운 깊었어도 차갑지 않아. 소곤 소곤 숲속의 단풍잎 소리, 산 높고 낮음을 알 수 없구나.

『유관집(遊觀集)』

주 4) 본 연구에서의 별원(別園)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담의 유무에 따라 원유(園囿)와 별원으로 구분한 Jeong(1993)의 연구 내용을 수용하여 담이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주 5) 해방직후에 발간된 서울시사에 의하면 '석파정은 개울을 건너가야 한다.'는 기록이 나타나 석파정의 진입공간 전면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6) 개화 및 열매의 결실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정원 내 수목의 목록은 Lee et al.(2006)와 Jeong(2009)의 연구를 토대로 분류하였으며, 식재도면은 Yoo et al.(1989)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REFERENCES

- Ahn, D. H.(2004). The Housing Culture in the 18, 19th Century and the Imaginary Garden. Jindanhakbo, 97(-): 111-138.
- Chung, J. H.(1996). Korea's traditional garden. Publishing Landscape architecture: Seongnam, Korea.
- Heo, Y.(2000). Sochisilrok. Seomundang:Paju, Korea.
- Hong, K. P.(2001).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 Jeong, B. G.(2009). A Study on the Private Garden in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S. H.(1993). Study of the archetypes theory on the suggestions of architectural sources of the pavilions, Junja in the garden of Chosun times. Master's Thesis of Myongji University, Yongin, Korea.
- Jo, C. L.(2003). Pungsuk(楓石), Seo, Yugu(徐有榮) and ImWonKyungJae(林園經濟). Hanmunhakbo, 8(-): 201-225.
- Joo, N. C.(2000). House Architecture in Korea. Iljisa:Seoul, Korea.
- Jung, M.(2005). The discovery of the intellectuals of the Chosun Dynasty, 18th century. Humanist: Seoul, Korea.
- Kang, M. G. (1998). Kyounghwasejok and 'Collecting Classical Works' of Late Choson. Dongyang Hanmoon Association, 12(-): 5-38.
- Kim, M. R.(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s Built by

- the GyeongHwaSaeJok, Master's Thesis of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12. Kim, Y. M.(2012). Recovery of Original Form in Seokpajeong Byeoldang Vill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1(5): 96-109.
 13. Lee, J. K.(1992). A Study on the Retreating Villa (Byeol Soe) Garden in Choson Dynasty, Doctorate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14. Lee, W. H., Lee, J. S. and Kim, Y. K.(2006). A Basic Study on the Planning and the Space Composition of Sukpaju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1): 21-31.
 15. Park, S.(2013). Pierce the Humanities East and West, Dulnyouk :Paju, Korea.
 16.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2007). Cheong Wa Dae and history cultural inheritanc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17. Shin, S. S.(2011). Space Organization and Landscape Culture on Upper-class's House('Sauidang') in Late Period of the Jose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2): 19-27.
 18. Sustainable Agricultural Museum of Yangpyeong. (2009). Andong Kim's Munjeong Gongpa Donate Artifacts, Yangpyeong, Korea.
 19. The Kyunghyang Shinmun, May 9, 1988.
 20. Yoo, B. R., Hwang, K. W. and Park, J. H.(1989). The Original Form of the Joseon Dynasty Garden,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1. Zhu, L. C.(2006). Chinese aesthetics fifteen institutions, Almagbooks: Seoul, Korea.
 2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itage channel
<http://www.heritagechannel.tv/>
 2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Korea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http://overseas.nricp.go.kr>
 24. Shinjongwoo's Biographical Dictionary
(<http://www.shinjongwoo.co.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5월 07일

심 사 일: 2014년 5월 15일(1차)

2014년 5월 26일(2차)

2014년 5월 30일(3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5월 3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